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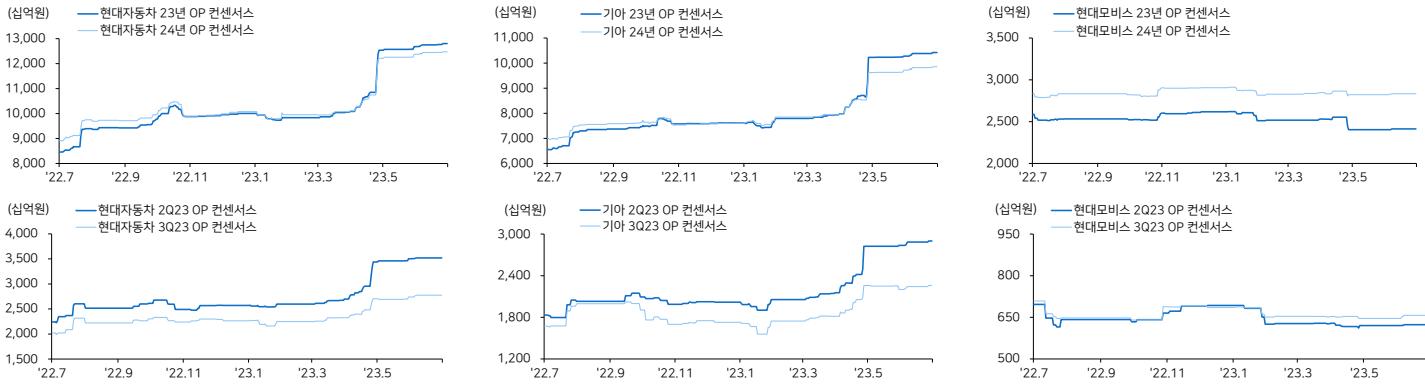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3. 7. 5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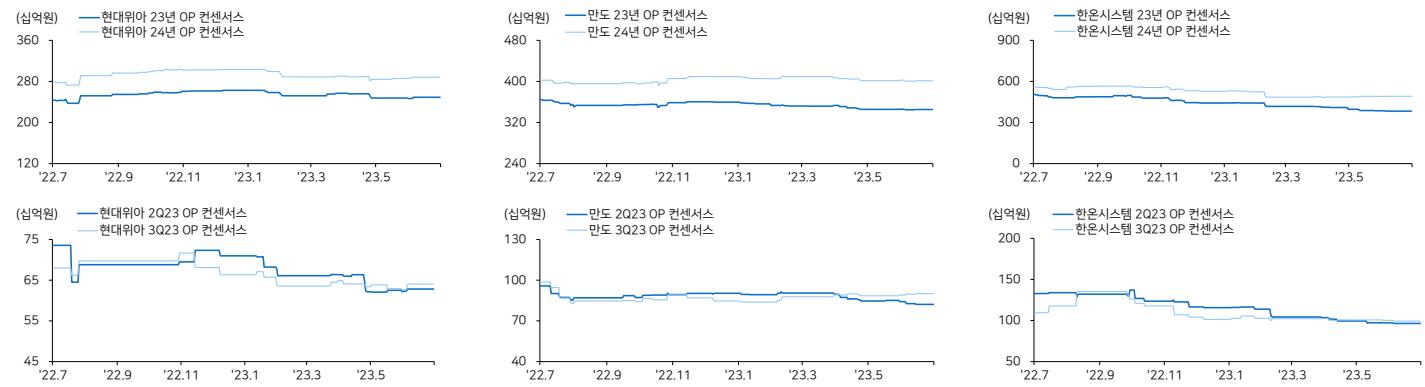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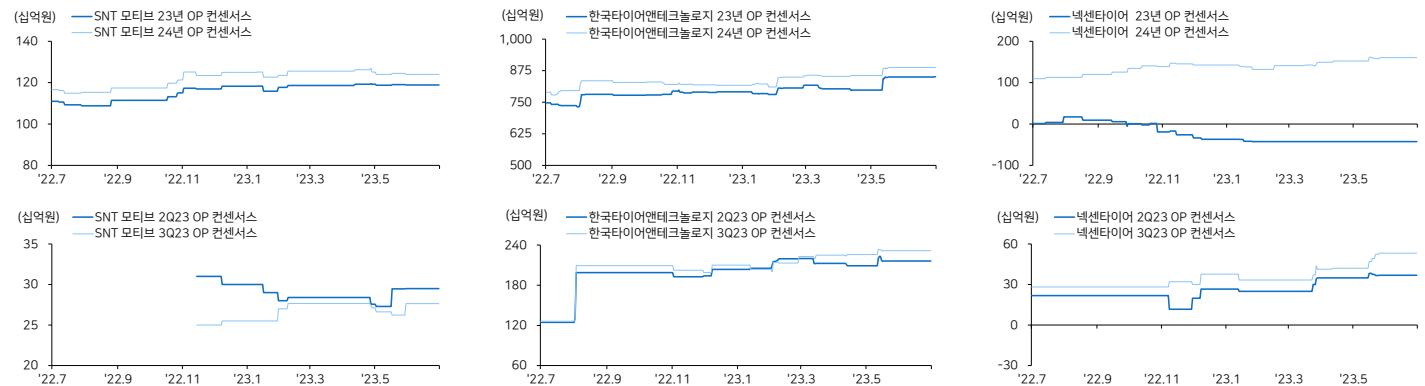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EV truck maker Nikola to pull the plug on battery supplier Romeo (Reuters)

Nikola는 배터리 공급업체 Romeo와의 계약 및 협업을 종료하고 청산(채권자 이익 할당)을 결정. 2022년 배터리 공급망 강화 목적으로 Romeo를 약 1억4400만 달러에 인수를 추진했으나 저조한 수익성 및 투자 심리 악화로 무산

<https://han.gl/dATSWG>

아마존, 듀일 배송에 리비안 전기차 투입... 300대 우선 배치 (조선비즈)

아마존은 장기적인 운송네트워크 전기화 전략의 일환으로 앞으로 몇 주간 듀얼 배치 및 배달로 리비안 전기 배트리 밸류, 뒤셀도르프에 리비안 전기 배트리 투입.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10만대의 리비안 배트리를 배치해 유럽 운송네트워크 시장 공략 계획

<https://han.gl/NhNAuZ>

SK 인수' 아동파워, 美 사업장 확장하며 20억 1보조금 확보 (더구루)

미국 에너지 슬로션 회사 '아동파워'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매들린부르크 카운티로부터 인센티브 확득 확정. 이번 보조금을 포함하여 아동파워는 총 160만 달러(약 2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정

<https://han.gl/RYDIOt>

기아,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한다... '기존 서비스 한계 극복에 초점' (블로터)

기아가 배터리 구독(리스) 서비스(배터리 구독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대캐피탈 등과 업무 협약 체결.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가격 만을 초기 구매 시 지불 후 배터리 가격은 매월 구독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도입 예정

<https://han.gl/EWibCJ>

국토부 '국산·수입 전기차 연말까지 무상점검 받으세요' (JTBC)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차동차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벤츠, BMW,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

<https://han.gl/UGgjOQ>

Tesla China-Made EV Wholesale Sales Exceeded 93,000 In June 2023 (InsideEVs)

중국승용차협회 CPCA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Tesla 도매 판매는 93,680대로 YoY +18.7% 증가한 수치 기록. 각 인허 및 인센티브(보험 프로모션 등)에 따른 증가된 수요가 Tesla Giga Shanghai의 역대급 판매 실적을 견인

<https://han.gl/otusVp>

Xpeng EV Sales Further Declined In June 2023 (InsideEVs)

Xpeng의 글로벌 EV 판매량은 8,62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 2분기 동안 23,205대를 인도하여 상반기 41,000대 이상 판매 기록하였지만 중국 내 경쟁 심화로 YoY -40% 감소한 판매 실적 기록

<https://han.gl/kXKxzH>

GAC Aion's Hyper brand launches Hyper GT sedan, offers battery swap-enabled version (CnEVPost)

GAC Aion의 신규 세단 모델 Hyper GT가 RMB 219,900~RMB 339,900의 5가지 버전으로 출시. RMB 239,900 이상 트림부터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며 텔레, 리스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될 예정

<https://han.gl/MifpV>

테슬라 맥시코 기가팩토리 2025년 1분기 가동 전망 (더구루)

테슬라의 멕시코 기가팩토리 가동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2024년 2분기 상업 가동 예정 일자는 부품 공급사 선정 문제 등 차질을 겪으며 2025년 1분기로 생산 가능 시기가 늦추어질 가능성 제기

<https://han.gl/KcfeG>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문서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